
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(案)

2013. 7.

교육부
학술진흥과

차례

I . 학술지 등재 및 지원제도 관련 경과	1
II .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	3
1. 학술지 등재제도 현황	3
2. 학술지 등재제도의 현주소 진단	4
가. 학술지 등재제도의 성과와 한계	4
나.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시 현장의 어려움	6
3.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	8
가. 주요 개선사항	8
나. 학계 중심 위원회 구성방안(안)	9
III .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	11
1. 학술지 지원 현황	11
가. 인문사회분야 지원	11
나. 이공분야 지원	12
2. 학술지 지원 개선방안	13
IV . 향후 추진계획	15

I. 학술지 등재 및 지원제도 관련 경과

□ 학술지 (발행)지원 시작 및 학술지 등재제도 도입

- '91년부터 학술단체의 학술활동 활성화 및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술지 지원 사업 실시
- '98년 학술지 등재제도를 도입하여 학술지의 체계 정립 및 전반적 수준 제고에 기여
 - 학술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지 등재제도를 도입

□ “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” 마련 및 추진('11.12.)

【개선방안 주요 내용】

- '14년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를 통한 학계 자율평가체제로의 전환
 -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이후 학술지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*를 추진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 부실 학술지 발생 예방
 - * 「학술진흥법」 제13조(학술실태조사)
 - 대학 교수 및 연구자들로부터 분야별 학술지에 대한 정기적 의견 수렴 결과 공개
 - ※ '12.12월 “학술지 선호도 조사” 결과 발표
- 우수학술지 육성* 및 신생·소외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(국내학술지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)
 - * 우수학술지는 학계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, 매년 1.5억원씩 3년간 지원
- 학회 및 대학에 ‘온라인 논문투고·심사시스템’을 보급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·투명성을 강화하고, 논문 전문 공개 등을 통한 DB 구축

□ “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” 마련 및 추진(‘12.6.)

【후속조치 주요 내용】

- 일정한 체계 요건을 갖춘 학술지를 등록 학술지로 인정하고, 등재·등재후보지만을 탑재하던 KCI*를 확대하여 모든 등록학술지를 탑재
 - *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 : Korea Citation Index) : 국내 학술단체가 발간하는 학술지 정보, 게재논문정보 및 참고문헌을 DB화하고 논문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
-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라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등재·등재후보지 기준을 삭제하도록 유도
- 등재·등재후보지를 교원업적평가에 활용하는 대학에 업적평가 제도 개선 참고자료를 제공*하는 등 자체 평가기준 마련 지원
 - * 교수업적평가 사례조사 완료(‘12) 및 대학에 자료 보급(‘13.2.)

□ 학술지 등재제도 관련 현장 의견 수렴*

- * 대학, 학계(학회) 등이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에 대한 유보·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
- 교무처장 등 대학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 추진(‘13.2.)
- 대학·학회 등 등재·등재후보지 활용 현장을 중심으로 등재·등재후보지 제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(‘13.5.)
- 학계 전문가 및 대학관계자를 중심으로 공청회 실시
 -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,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

< 공청회 개최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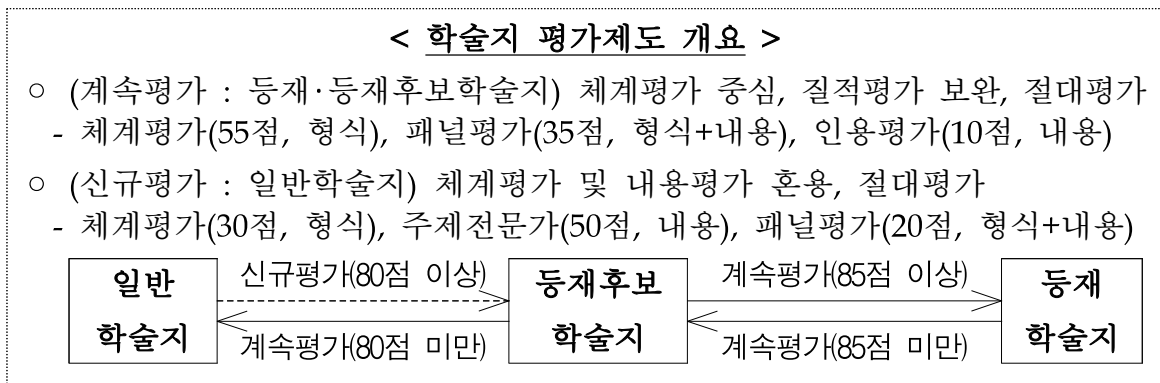
- 일시 및 장소 : ‘13.7.10(수) 14:00~15:40, 고려대학교 엘지-포스코 경영관
- 토론자 : 우제창 교수(좌장), 김경현 교수, 박영준 교수, 박현욱 교수, 최태강 교수, 김호기 교수, 김덕규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(발제) 등
- 논의 주제 :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

II.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

1 학술지 등재제도 현황

- (등재 구조) 일반학술지가 신규평가를 통과하면 등재후보지가 되고, 등재·등재후보지는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(후보) 여부 (재)확정*

* 등재후보지는 매년, 등재지는 3년 주기로 계속평가 대상



- (등재·등재후보지 현황) 등재·등재후보지는 '13년 기준 총 2,121종이며, 이중 등재지는 1,632종(76.9%), 등재후보지는 489종(23.1%)

< 학문분야별 등재·등재후보지 현황('13.5월 기준) >

구분	인문	사회	자연	공학	의약학	농수해	예체능	복합학	계
등재	434	559	89	188	164	63	84	51	1,632
등재 후보	103	177	19	44	81	10	37	18	489
계	537	736	108	232	245	73	121	69	2,121

- 등재·등재후보지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는 약 4,900종이며, 이중 43%인 2,121종의 학술지가 등재·등재후보지로 인정된 상황
- '98~'11년까지 매년 평균 152종의 학술지가 등재후보지로 인정되었으며 '99년(201종), '03년(329종)에 다수의 학술지가 인정

< 연도별 등재·등재후보지 등락 현황 >

	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
신규	일반→등재후보	58	201	137	149	142	329	152	146	126	146	145	160	168	91	
	등재(후보) 유지*		58	79	20	230	263	486	305	403	524	641	757	793	886	464
계속	등재후보→등재		-	-	218	91	67	186	215	215	143	106	111	164	111	98
	등재후보→일반		-	-	-	-	3	5	4	2	9	3	3	3	10	16

* 등재 → 등재후보 포함

2

학술지 등재제도의 현주소 진단

가 학술지 등재제도의 성과와 한계

- (성과) 학술지 등재제도는 학술 수준의 전반적 제고에 기여했으며, 특히 국내학술지 체계 마련과 연구업적평가의 객관적 지표 확보에 도움
 - 학술지 등재제도 도입에 따라 학술단체 설립이 증가*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 발행이 확대되는 등 학술활동이 활성화
 - * 국내 학술단체 수(개) : ('90) 1,890 → ('10) 7,446 (293% ↑)
 - ※ (학회대상 설문조사) 응답 학회 중 81.6%가 학술지 등재제도가 학술단체의 학술활동 및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
 - 구체적으로 국내 학술지의 체계 마련(57.8%), 국내 학술지의 전반적 수준 향상(56.9%), 연구업적평가지 활용 가능한 객관적 지표 마련(49.2%)에 도움(중복응답)
 - 대학 및 정부 등에서 등재·등재후보지를 학술·연구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활용
 - 대학이 교수업적평가지 학술활동과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등재·등재후보지를 폭넓게 활용*
 - * (예시)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등재지, 등재후보지, 일반학술지인지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(점수)을 다르게 적용
 - 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연구실적 평가에 등재·등재후보지 기준 사용*
 - * “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”를 통해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예정을 안내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, 인지하더라도 계속 등재·등재후보지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상황

□ (한계) 국내학술지의 과도한 양적 팽창과 학술지 관리의 양(量)·형식 중심주의 등 일부 부작용도 유발

※ 학회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학술지의 과도한 양적 팽창(47.1%), 학술지 관리의 형식 중심주의 및 논문수 중심의 평가체제(61%)를 주요 부작용으로 지적(중복응답)

○ 학술지 등재제도의 평가항목이 논문 게재 절차 등 형식(체계)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게재 논문의 질적 수월성 제고에 한계

- 아울러 학문분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분야별 특수성 고려 미흡

< 학술지 평가 심사항목 >

	평가유형	배점	주요 항목
신규 평가	체계(형식)	40점	정시발행 여부, 논문 게재율,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등
	주제전문가	40점	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, 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,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등
	패널(절차)	20점	심사기준 및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, 편집위원의 전문성 등
계속 평가	체계(형식)	55점	정시발행 여부, 논문 게재율,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등
	패널(절차)	35점	참고문헌(각주)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, 편집위원의 전문성
	인용평가	10점	인용지수(IF) 순위

○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등재(절대평가)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·등재후보지가 과도하게 양산되고 일반 학술지와 차별성 약화

※ 등재·등재후보지 수 : ('98) 56종 → ('13) 2,121종 / '08~'10년간 등재후보지 평균 선정률 68.4%

○ 학술지 평가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(기준 확정 및 심사)을 담당함에 따라 의존성이 심화되고 학계의 자율적 평가 역량이 약화

※ 선진국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학술지 평가체도가 없으며, 동료학자들의 심사를 받은 저술(논문과 저서 등) 등을 토대로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학계가 자율적으로 평가

○ 등재·등재후보지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논문 심사 부실, 의도적인 게재율 낮추기 및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일탈행위 발생이 증가

※ 등재·등재후보지 530종 실태점검 결과, 취소7종, 경고40종, 주의135종 등 총 34%의 학술지에서 문제 확인('11.2~'11.10)

나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시 현장의 어려움

◇ 설문조사(13.5.)와 공청회(13.7.10)를 통해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시 대학과 학회(학계)의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확인

[설문조사 결과]

- (대학)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
 - 학술지 등재제도를 교원업적평가 등 학교 운영에 활용하는 대학이 전체의 98%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,
 - ※ 95.9%의 대학이 교원업적평가지 등재·등재후보지 활용중
 -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대학은 1% 미만이며, 마련 중인 대학도 1/5 수준에 불과
 - ※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자체적 대책 마련을 완료한 대학은 0.8%이며, 마련 중인 대학은 21.5%, 마련에 착수하지 못한 대학은 74.4%
 -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(14년 예정)까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도 폐지시점까지 대학의 대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※ 응답한 대학 중 66.7%의 대학이 대책 마련에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, 2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학도 29.9% 수준
 - 특히 SCI와 IF(인용지수)와 같은 공신력 있는 평가기준이 있는 이공 분야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는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
 - 또한 많은 대학이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수업적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
 - ※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대학이 대안으로 고려하는 방안으로 대학·학과별 자체기준 마련이 32.4%, 해외학술지 DB가 6.8%, 기존 등재·등재후보지 계속 인정이 42.6% 차지

- (학계) 학술지 체제 마련에 큰 역할을 해온 학술지 등재제도가 폐지될 경우 학술지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
 - 역량이 부족한 학술지 난립, 기존 (대규모) 학회의 권력화, 학술지 질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우려
 - ※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술지 난립이 52.5%, 학술지 질 저하가 49%, 기존 학회의 권력화가 42.5%(중복응답)
 - 아울러 기존의 학술지(학회)도 학계 자율평가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
 - ※ 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학회는 4.2%이며, 83.8%의 학회가 해외 등재 및 편집인 선임에 따르는 비용(52.3%), 소외·신생분야로서 발전의 어려움(31.5%)의 문제를 예상

<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대한 대학과 학회의 의견 >

- (대학) 학술지 등재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5.2%,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%,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9.1%에 불과
- (학회)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2.4%, 학계 자율평가 체제와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8%,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21.5% 수준에 불과

[공청회 논의 결과]

- 현재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·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
 - 평가항목을 형식평가보다는 내용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
 - 각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방식과 항목을 조정
 - 신생·소외 학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, 국내학술지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

3

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

기본 방향

- ◇ 대학 현장의 대비 상황과 학계의 여건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'14년 학술지 등재제도의 일방적 폐지는 시기상조(時機尙早)
- ◇ '14년 예정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을 유보하되,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 추진

가 주요 개선 사항

- 체계·형식 요건의 비중이 높은 기존의 평가를 질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술지 등재제도의 관리 기능 강화
 - SCI, Scopus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등재학술지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,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
 - ※ (예시) 이독성(易讀性) 등 편집의 수준, 학술지의 인용도 및 영향력,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및 학술지의 전문성 등
- 각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 제고
 -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학문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를 직접 선정하여 적용
 - ※ Thomson Reuters社(Web of Science)에서도 과학기술(SCI(E)), 사회과학(SSCI), 인문(A&HCI) 분야 별로 학술지를 관리

- 학계를 중심으로 학술지 평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의 자율평가 역량을 제고
 - ※ “학계 중심 위원회 구성방안(안)” 참고
 -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지 등재제도 평가방식 및 항목을 조정
 -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등재지 평가의 공정성·엄정성 강화

- 등재학술지는 계속평가를 받는 대신 3년마다*의 간소화된 재인증 심사를 통해 등재학술지 지위를 유지
 - * 1차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한 학술지는 차년도에 다시 재인증 심사를 받고, 연속 2회 재인증을 실패하는 경우 등재후보지로 강등
 - 등재학술지의 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으로 재인증 심사 요건을 구성

- 현장의 여건이 성숙되면,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폐지시기 재(再)결정

나 학계 중심 위원회 구성방안(안)

- 위원회의 의의 및 주요 기능
 - 학문분야별 저명한 학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등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계 자율평가 역량 제고
 - 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방식 자문,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등의 역할 수행

□ 조직 및 구성

- 8개 학문분야별*로 총 2~4명씩 총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결정
(위원장 1인 포함)
 - *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라 인문, 사회, 자연, 공학, 의약학, 농수해, 예체·복합 분야별로 배분
- 학문분야별 위원수는 각 학문분야별* 학술지의 수를 감안하여 조정
- 각 학문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(母학회)*의 추천을 받아 위원 후보자를 구성하고, 학계 인지도, 공정성, 참여의지 등을 감안하여 선발
 - * (예시) 학술단체총연합회, 인문학총연합회, 한국사회과학협의회, 과학기술인총연합회 등
- 위원 명단과 담당 분야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위원의 평가에 대한 책임성 확보

Ⅲ.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

1 학술지 지원 현황

가 인문사회분야 지원

- (우수학술지)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 학술지(Top Journal) 육성을 위해 가능성 있는 소수학술지 집중 지원*(’12~)

* ’12년 5개 학술지에 각 0.7억원(총3.5억원) 지원(3년 예정)

- (국제학술지) ’08년 이후 국내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학술지 외국어 발행 지원*(이공분야는 ’12년 이후 국제학술지 지원 중단)

* ’12년 기준 18개 학술지 평균 23.8백만원 지원(총 4.29억원)

- (국내학술지) ’12년 기준 국내학술지에 19.3억원(498개)이 지원되었으며, 지원단가와 지원 학술지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
* ’12년 기준 최고 10백만원, 최저 0.3백만원, 평균 3.9백만원 지원

< 연도별 학술지 지원 현황 >

사 업 명	2008년		2009년		2010년		2011년		2012년		
	과제수	금액	과제수	금액	과제수	금액	과제수	금액	과제수	금액	
우수 학술지 (세계적 학술지)	인문	-	-	-	-	-	-	-	5	350	
	이공	-	-	-	-	-	-	2	300	-	
	소계	-	-	-	-	-	-	2	300	5	350
학술지 외국어 발행	인문	19	400	22	413	24	735	22	500	18	429
	이공	50	1,363	59	1,533	40	1,665	31	1,520	-	-
	소계	69	1,763	81	1,946	64	2,400	53	2,020	18	429
국내 학술지	인문	664	2,578	801	2,225	956	3,200	654	2,395	498	1,928
	이공	287	1,210	338	1,229	-	-	-	-	-	-
	소계	951	3,788	1,139	3,454	956	3,200	654	2,395	498	1,928
계	인문	1,155	5,761	1,381	5,148	1,662	6,485	1,287	6,067	883	5,060
	이공	619	3,839	665	4,448	40	1,665	44	2,120	2	80
	계	1,774	9,600	2,046	9,596	1,702	8,150	1,331	8,187	885	5,140

나 이공분야 지원

- (국내학술지) '11년 학술단체지원사업 분리(이공계 학술활동 지원)에 따라 국고를 통한 이공 분야 국내학술지 지원은 중단*

* 과학기술기금을 통해 지원 중이며 '12년 기준 405종 22억원 지원(개당 평균 5.4백만원)

- (우수학술지) 국제학술지 및 세계적 학술지 육성 등을 통해 우수 학술지 육성 추진

* 국제학술지('12) : 96개 × 평균20.83백만원 = 2,000백만원

세계적학술지('12) : 1개 × 평균110백만원 = 110백만원

- 아울러 한국 발행 학술지를 SCI(E) 등 국제적 저명 색인DB에 등재 시키고, 영향력 지수를 높이기 위한 학술지 국제화* 지원

* 학술지국제화('12) : 20개 × 평균39.5백만원 = 790백만원

< 참고 : 학술지 지원사업 재원 구조 >

(단위 : 백만원)

	재원		
	인문사회 분야	이공 분야	
		학술단체지원사업	이공학 학술활동 활성화
우수학술지 (세계적학술지, 국제학술지)	350	2,110	-
외국어발행 지원 (학술지 국제화)	429	790	-
국내(일반)학술지 지원	1,928*	-	2,200

* 결산 기준 실집행액은 1,931백만원

※ 괄호안은 이공분야 학술지 지원사업명

2

학술지 지원 개선방안

□ 우수학술지 육성

- (이공) '세계적학술지육성사업'과 '국제학술지 지원사업'을 통합하고, 학술지의 발전가능성, 역량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

* 지원 기준을 보장하고 학술지간 지원 차등폭을 넓혀 지원효과 달성

- (인문사회) 기존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은 중단

< 우수학술지 지원 현황('11년 개선방안 대비) >

- (계획) 학문분야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 수준의 학술지로 육성
 - (대상선정) 학계에서 자율적 평가를 통해 추천하는 학회의 학술지
 - (지원규모) 10개('12)→15개('13)→20개('14), 과제 당 연간 1.5억원 내외 5년 이내 지원
- ⇒ (추진현황) '12년 5개 학술지에 0.7억원씩 총 3.5억원 지원

□ 국내학술지 지원(인문사회 분야*)

* 이공분야의 경우 과학기술기금을 활용하여 국내학술지를 지원 중(미래부)

- 학문의 다양성, 연구 저변의 확보 차원에서 국내학술지 지원 규모를 '12년 수준으로 유지

- 지원 단가 하한을 정하는 등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, 역량있는 학술지에 인센티브*를 지원

* 학술지가 Web of Science(SCI(E), SSCI, A&HCI), Scopus 등재 비용으로 활용

< 국내 학술지 지원 현황('11년 개선방안 대비) >

- (계획) 총 예산(약 36억 원, '12년 기준) 대비 학술지 발행 지원 예산 비율을 50%('12, 18억원)→30%('13, 11억원)→0%('14)으로 감소
 - 감액 예산은 우수학술지 및 소외 학문 분야 등의 학술지 지원 사업으로 전환
- ⇒ (추진현황) '12년 학술대회 국내학술지 지원에 19.3억원이 지원(학술대회 예산 항목 이동) 되었으며, '11년 지원규모(20.2억원)와 비슷한 수준

□ **신생·소외(융·복합 포함)분야 학술지 지원 강화**

- 신생·소외 분야 및 융·복합 분야 학술지에 대해 국내학술지 지원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및 지원 금액 추가 등의 우대 조치 마련
 -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생·소외 분야 확정
- 未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중 발전가능성이 큰 학술지를 선정하여 특별 지원하는 방안 검토

< 신생·소외학문분야 학술지 지원 현황('11년 개선방안 대비) >

- (계획) 소외·신생 학문 분야, 지역 학문 발전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학문의 분야별·지역별 균형적 발전 도모
⇒ (추진현황) '12년에 추진된 사항 없음

IV. 향후 계획

□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 유보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('13.7.19)

□ '13년 학술지지원사업 시행계획* 마련(~'13.8.)

* 국내학술지 지원, 신생·소외 학문분야 우대 및 별도 지원 계획 포함

□ 학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(~'13.10.)

□ 평가 기준 마련 및 신생·소외 분야 지원 방안 확정(~'13.12.)

○ 평가 기준 시안* 마련(~'13.11.)

* 학계, 해외사례(Thomson Reuter社, Scopus) 등을 참고하여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이 시안 마련

○ 신생·소외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 관련 시안* 마련(~'13.11.)

* 학회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생·소외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

□ 학술지 관련 현황

○ 학술지 평가 및 학술논문 DB 현황

- 등재·등재후보학술지 현황 ('13.5월 기준)

구분	인문	사회	자연	공학	의약학	농수해	예체능	복합학	계
등재	434	559	89	188	164	63	84	51	1,632
등재후보	103	177	19	44	81	10	37	18	489
계	537	736	108	232	245	73	121	69	2,121

※ 등재·등재후보지와 일반학술지(KCI 등재) 합계: 4,542종('13.5월 현재)

- 해외학술지 DB 등재현황 ('12.12월 기준)

DB	SCI	SCIE	SSCI	A&HCI	SCOPUS
국내학술지 수(A)	9종	82종	17종	7종	173종
전체 등재학술지 수(B)	8,621종		3,121종	1,728종	20,469종
비율(A/B)	1.06%		0.54%	0.41%	0.85%

※ 한 학술지가 여러 DB에 중복 수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A&HCI, SCI(E), SSCI의 합계는 WoS 등재학술지 수와 일치하지 않음(WoS 등재학술지 수 111종)

- 연도별 등재·등재후보학술지 선정현황 ('12.12월 기준)

구분	인문	사회	자연	공학	의약학	농수해	예술체육	복합학	계
1998	8	15	11	13	4	1	3	1	56
1999	40	55	23	39	20	16	6	1	200
2000	29	38	15	19	18	9	4	2	134
2001	42	47	7	22	11	4	11	1	145
2002	33	45	4	18	19	9	5	1	134
2003	99	112	16	29	24	15	15	12	322
2004	37	55	2	14	16	6	9	11	150
2005	36	44	3	18	21	1	10	9	142
2006	28	47	7	10	9	2	6	6	115
2007	45	60	4	12	21	1	7	3	153
2008	38	55	4	8	17	2	14	5	143
2009	47	60	1	13	22	2	9	4	158
2010	35	65	9	13	23	1	17	8	171
2011	20	38	2	3	20	3	5	5	96
2012	-	-	-	1	-	-	-	-	1
2013	-	-	-	-	-	1	-	-	1
계	537	736	108	232	245	73	121	69	2,121

- 연도별 신청 및 선정현황

평가연도	구분	신청과제	선정과제	유지과제	탈락과제	탈락률(%)
1998년	신규평가	103	58	-	45	43.7%
1999년	신규평가	303	201	-	102	33.7%
	계속평가	58	-	58	-	-
2000년	신규평가	184	137	-	47	25.5%
	계속평가	79	-	79	-	-
2001년	신규평가	196	149	-	47	24.0%
	계속평가	238	218	20	-	-
2002년	신규평가	209	142	-	67	32.0%
	계속평가	321	91	230	-	-
2003년	신규평가	374	329	-	45	12.0%
	계속평가	333	67	263	3	0.9%
2004년	신규평가	171	152	-	19	11.1%
	계속평가	677	186	486	5	0.7%
2005년	신규평가	176	146	-	30	17.0%
	계속평가	524	215	305	4	0.8%
2006년	신규평가	180	126	-	54	30.0%
	계속평가	620	215	403	2	0.3%
2007년	신규평가	228	146	-	82	36.0%
	계속평가	676	143	524	9	1.3%
2008년	신규평가	215	145	-	70	32.6%
	계속평가	750	106	641	3	0.4%
2009년	신규평가	231	160	-	71	30.7%
	계속평가	871	111	757	3	0.3%
2010년	신규평가	235	168	-	67	28.5%
	계속평가	960	164	793	3	0.3%
2011년	신규평가	182	91	-	91	50.0%
	계속평가	1007	111	886	10	1.0%
2012년	신규평가	-	-	-	-	-
	계속평가	578	98	464	16	2.8%

□ 학술단체 관련 현황

○ 일반현황 : 전체 학술지 4,545종, 학술단체 7,726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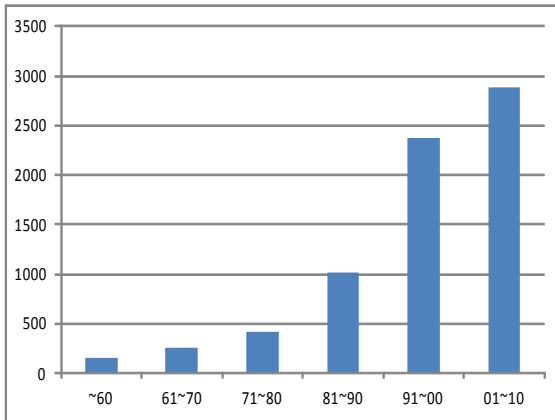
- 학술지 당 교원 수 15.0명, 학술단체 당 교원 수 8.9명

<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술단체, 등재·등재후보·일반 학술지(소식지 등 제외) 현황(13.5) >

분야	학술지			학술단체			교원 수 당 비율		
	등재·등재 후보지	일반지	합계	학회 등	대학 연구소	합계	교원 수	학술지당 교원 수	학술단체 당 교원 수
인문 사회	1,463	1,550	3,013	2,326	2,212	4,532	31,309	10.4	6.9
과학 기술	658	874	1,532	910	2,278	3,188	37,268	23.3	11.7
계	2,121	2,424	4,545	3,236	4,490	7,726	68,577	15.0	8.9

○ '90년대 이후 신규학술단체 설립 급증, '90년 1,843개에서 '11년 7,527개로 약 4배 증가

< 연도별 신규학술단체 현황 ('13.5월 기준) >



연도	신규단체 수	비율	누적단체 수
~60	151	2%	151
61~70	262	3%	413
71~80	418	5%	831
81~90	1,012	13%	1,843
91~00	2,369	31%	4,212
01~10	2,888	37%	7,100
11~	427	6%	7,527
미등록	199	3%	7,726
계	7,726	100%	

○ 인원이 파악된 5,052개의 학술단체 중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술단체가 58% 차지

< 규모별 현황('13.5월 기준) >

인원(명)	1 ~50	51 ~100	101 ~500	501 ~1000	1001 ~5000	5001~	계	미제출	총계
학술 단체수	2,911	307	1,120	412	256	46	5,052	2,674	7,726
비율	58%	6%	22%	8%	5%	1%	100%		

*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 현황('13.2)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, 회비 납부 등 실제 활동하는 회원의 경우 조사된 규모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

□ 신규평가 및 계속평가 방식

구분	신규평가('11년기준)	계속평가('12년기준)
1. 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 신청 및 자료 우편송부 - 자체평가서, 논문투고대장, 학술지 발행 관련 제규정 출력본, 학술지 1부 제출 - 임원명단 출력본 미제출 ※ 임원명단은 파일만 온라인 탑재 	
2.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연도를 제외하고 직전 3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한 학술지 ○ 연구윤리규정을 '10.12.31.이전에 제정·운영하고 있는 학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속평가 시기가 도래한 학술지 ○ 연구윤리규정을 '11.12.31.이전에 제정·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1회 탈락으로 처리
3. 평가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계평가(11개항 40점) ○ 주제전문가(5개항 40점) ○ 패널평가(4개항 20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계평가 : 11개항 55점 ○ 패널평가 : 7개항 35점 ○ 인용평가 : 1개항 10점
4. 등급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재후보학술지 : 80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: 80.0~84.9점 ○ 등재학술지 선정 : 85.0점 이상이며, 전년도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 ○ 등재학술지 유지 : 85점 이상
5. 과락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단계별 점수과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계평가(28점 미만) - 주제전문가(28점 미만) - 패널평가(14점 미만) ○ 체계평가 항목과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계평가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- 논문명, 저자, 초록,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 -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단계별 점수과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체계평가) 38.5점 미만 - (패널평가) 24.5점 미만 - (인용평가) 과락적용 제외 ○ 체계평가 항목과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논문명, 저자, 초록,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 - 논문 게재율 -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
6. 재심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재후보 선정점수 5점차 이내 (75.0점~79.9점)로 탈락한 학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재후보학술지 : 등재후보 유지 점수 5점차 이내로 탈락(75.0점~79.9점) 하거나, 유지(80.0점~84.9점) 판정을 받은 학술지 ○ 등재학술지 : 등재유지 점수 10점차 이내로(75.0점~84.9점) 탈락한 학술지

□ 신규평가 항목 및 배점표

구분	평가항목	배점	비고	
체계 평가	1.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	3		
	2.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	3	과락적용	
	3.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제공여부	5		
	4. 논문명, 저자, 초록,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	3	과락적용	
	5. 게재논문의 투고, 심사(수정), 게재확정일자 기재여부	3		
	6. 논문 게재율	5		
	7.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	5	과락적용	
	8. 논문투고자의 국내·외 분포도	5		
	9. 편집위원의 중복성	2		
	10.	(학회 및 기타기관) 편집위원의 전국성	4	
		(대학부설연구소) 편집위원의 전국성	2	
11.	(학회 및 기타기관) 편집위원 심사점유율	2	항목추가	
	(대학부설연구소) 자교 소속 연구자 심사점유율	4		
11개 항목		40	배점과락	
주제 전문가 평가	1.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	15		
	2. 참고문헌(각주)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	10		
	3. 학술지의 전문성	5		
	4.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	5		
	5.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	5		
5개 항목		40	배점과락	
패널 평가	1.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	5		
	2.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의 구체성	5		
	3. 투고규정의 구체성	5		
	4.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	5		
4개 항목		20	배점과락	

※ 체계평가 2번, 4번, 7번 항목 중 0점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

※ 체계평가 28점 미만, 주제전문가 평균 28점 미만, 패널평가 14점 미만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

□ 계속평가 항목 및 배점표

구분	평가항목	배점	비고	
체계 평가	1.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	4	-	
	2.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	10	-	
	3.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제공여부	7	-	
	4. 논문명, 저자, 초록, 주제어 부분 표기형태	5	항목과락	
	5. 게재논문의 투고, 심사(수정), 게재확정일자 기재여부	4	-	
	6. 논문 게재율	7	항목과락	
	7.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	3	항목과락	
	8. 논문투고자의 국내·외 분포도	7	-	
	9. 편집위원의 중복성	2	-	
	10.	(학회 및 기타기관)편집위원의 전국성	4	-
		(대학부설연구소)편집위원의 전국성	2	
11.	(학회 및 기타기관)편집위원 심사점유율	2	-	
	(대학부설연구소)자교 소속 연구자 심사점유율	4		
11개 항목		55	-	
패널 평가	1.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	5		
	2. 참고문헌(각주)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	5		
	3.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	5		
	4. 편집위원의 전문성	5		
	5.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	5		
	6.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	5		
	7.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	5		
	7개 항목		35	

※ 인용평가의 경우 아래의 배점에 따라 점수를 책정

구분	10점	9점	8점	7점	6점	5점	0점
인용자수 순위 (%)	상위 0%-20%	상위 201%-40%	상위 401%-60%	상위 601%-80%	상위 801%-100%	인용자수 '0'	논문 미등록

□ 평가과정

○ 체계평가

- 평가주체 : 학술지 발행기관 자체평가(온라인) 및 재단확인
- 평가자료 :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
- 점수부여방식 : 항목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부여

○ 주제전문가평가

- 평가주체 : 학술지당 5명 이내 심사위원
- 평가방법 : 온라인 개별심사 후 평균점수 적용
- 평가자료 : 평가대상 학술지
- 점수부여방식 : 각 평가항목을 5등급화 하여 등급별 점수 부여

○ 패널평가

- 평가주체 : 패널위원
- 평가방법 : 패널심사
- 평가내용 : 평가신청서, 기관 규정 및 학술지
- 점수부여방식 : 각 평가항목을 5등급화하여 등급별 점수부여

○ 인용평가

- 평가주체 : 한국연구재단
- 평가방법 : 학술지 중분야 기준 상대평가
- 평가내용 : 학술지별 KCI 인용지수

□ 재심

- 1단계 : 정밀재심사(체계평가는 재단, 패널평가는 정밀심사단이 담당)
- 2단계 : 종합심사(내외부 전문가 7인내외로 구성된 종합심사단이 담당)

1. WoS(Web of Science)

□ 개요

- WoS(Thomson Reuters社)는 인용색인(Citation Index) DB로서 약 12,300여종의 학술지를 수록하고, 모든 학문 분야를 지원

정보제공사	Thomson Reuters
주제분야	자연과학, 사회과학, 인문예술 분야
제공DB	WoS 전체 타이틀 : 12,300여종 (한국저널 97종) - SCIE(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): 약 8,400 여종 - SCI(Science Citation Index): 약 3,800여종 - SSCI(Social Science Citation Index) 1956: 약 3,000 여 종 - AHCI(Arts &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: 약 1,650여종
콘텐츠	학술저널 서지정보(서명, 저자, 수록 학술지명, 인용사항 등)
제공형태	색인, 초록,
제공기간	1945년 ~ 현재 (타이틀 및 백파일 구입 여부에 따라 상이함)

□ SCI(Science Citation Index) 및 SCIE(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) 등

- SCI는 전 세계 과학관련 학술지 중, 중요한 5,200여종을 색인한 것으로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(ISI)가 지난 '60년대부터 사용
 - SCI는 인용지수(IF, Impact Factor)와 서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
- SCIE 논문들이 SCI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SCI와 SCIE급 논문을 구별하는 기준은 논문의 질이 아닌 저장매체 차이에 있음
 - * 인쇄물·CD-Rom 형태로 출판되는 SCI는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SCIE의 부분집합
- 그밖에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(SSCI:social science citation index), 예술 및 인문과학논문 인용색인(A&HCI:art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)'도 존재

□ 학술지 선정방법

- 매년 2,000여종의 학술지가 Thomson Reuters의 Editorial Staff(내부 직원)들에 의해 검토되고 그 중 10~12%의 학술지가 DB에 추가
 - * Editorial Staff : 편집위원들은 평균 20년 이상의 학술지 선정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경력의 위원도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
- 11명의 Editorial Staff가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 12,000종의 학술지를 평가하며, 연간 2,500~3,000여종이 등재를 신청하나 그중 약 10%만 선정

< 선정 기준 >

기본적 학술지 편집기준	출판의 적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해진 출판일정에 따라 출판되었는지 여부 ▪ 등재 신청시 연속적인 3개의 정시발행 학술지를 제출해야 하며, E-저널의 경우 정기적으로 9개월 이상 발간해야 함
	국제편집 규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용한 저널명, 실제적 논문명, 저자의 주소정보, 참고문헌의 완전성 등
	영어 서지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논문명, 저자명 및 주소, 참고문헌, 초록, 주제어의 영어표기 여부 ▪ 자연과학분야는 전문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
	동료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료평가 여부
편집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WoS에 등재된 학술지의 내용과 주제를 비교해 신규분야인지 기존에 있는 분야인지 여부(신규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노력) 	
국제적 다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자들에 대한 개별적 영향력 및 해당 저널에 공헌하고 있는 저자 및 편집 위원회 평가 ▪ WoS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인지 여부 	
인용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규저널은 저자, 편집위원의 인용도, 기존저널은 학술지의 IF 확인 	

< SCI(E) 등재현황 >

(2012.12. 기준)

구 분	SCI	SCI-E	계
국내 학술지(종)	12	79	91
전체 학술지(종)	3,800	4,500	8,300
점유율(%)	0.3	1.8	1.1

< 연도별 국내학술지 SCI(E) 등재현황 >

(2012.12.기준)

연 도	2008	2009	2010	2011	2012
SCI	10	10	12	12	12
SCI-E	52	54	72	78	79
계	62	64	84	90	91

2. Scopus

□ 개요

- 전 세계 5,000여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19,800여 타이틀의 초록, 참고문헌, 피인용 건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록 및 인용DB
- 과학, 기술, 의학, 사회과학 및 인문·예술 등 모든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계획, 활동, 지원을 위한 평가 및 분석 도구

정보 제공사	Elsevier
주제분야	자연과학, 생명과학, 보건학, 사회과학, 다학제 등
제공DB	Scopus: 19,800여종(한국저널 150종)
제공형태	색인, 초록
제공컨텐츠	학술저널, 컨퍼런스, 북 시리즈, 해설집
제공기간	1996년 ~ 현재

□ 이용추세

- WoS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WCU 사업부터 Scopus를 WoS와 함께 활용
 - * 학문분야별 상위 10% 저널에서의 논문 게재 수, 피 인용 총 횟수, 1인용당 평균 피인용 횟수, Scopus 등재 저널의 Editor 경력
- OECD, European Research Council, Australian Council 등 주요 국가의 연구회에서 국가별 연구성과 분석·평가, 기금지원을 위한 평가 도구로 활용
- QS 세계 대학평가(QS 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 포함)에서 연구 생산성 평가 시 교원 당 논문 수, 논문당 피 인용수를 Scopus를 통해 평가
-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평가 없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로 채택
 - 한국연구재단과 국내저널 Scopus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(MOU) 체결(한국연구재단이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 운영 중)

< Scopus 국내 논문 등재 현황 >

2007	2008	2009	2010	2011	전체 논문수	인용횟수	논문당 인용횟수
44,973	48,088	50,452	57,183	61,559	262,255	864,627	3.66

* 대한민국의 전세계 국가별 논문 출판 랭킹 : 12위

□ 학술지 선정방법

- '05년 설립된 독립적인 학술지선정위원회(CSAB*)가 선정을 담당
 - * CSAB : The Content Selection and Advisory Board
 - CSAB는 15명의 일반위원, 14명의 주제별 의장 등 29명으로 구성
 - '12년부터는 Scopus 등재를 신청하는 국내학술지는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(ECSAC-Korea)에서 1차로 심사
- 심사는 1단계의 최소요건심사와 2단계의 온라인 전문가 심사로 구성

< 최소요건 심사 항목 >

No.	세부항목	항목설명
1	Peer-Review	▪ 동료 연구자의 심사평가가 있는지 여부
2	English abstracts	▪ 영문으로 표기된 초록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
3	Regular Publication	▪ 학술지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여부
4	References in Roman script	▪ 참고문헌 표기가 로마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 (한글·영문 병행표기 가능)
5	Publication ethics statement	▪ 학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윤리규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

< 온라인 전문가 심사 항목 >

구분	세부항목	항목설명
정책	영어 초록	▪ 단어의 수 및 전체적 문단 형식 ▪ 모두 영어로 작성하였는지 여부
	참고문헌	▪ 참고문헌 표기방법이 표준화되었는지 여부
	편집정책 및 방향	▪ 학술지에서 발표한 “학술지 목적과 범위”의 설득력
	동료평가 제도	▪ 논문심사 등의 평가자료 구비여부 (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구비시 유리)
	편집위원의 다양성	▪ 편집인이 해당 분야의 국제적 명성과 지역적 대표성을 가졌는지 여부
	저자의 출신 다양성	▪ 저자가 모두 한국인일 경우 불리
편집	학문에의 기여도	
	초록 상태	
	학술지 목적에의 부합도	
	이독성	▪ 언어의 명확성, 문법 오류, 도표의 구성과 배치 ▪ 그림, 사진의 경우 해상도의 적절성 ▪ 도표 내용 영문표기 여부
인용도	학술지 인용도	▪ 학술지의 Scopus 및 KCI 인용도를 참고하여 평가
	편집위원 인용도	▪ 편집위원의 Scopus 및 KCI 인용도를 참고하여 평가
정시발행	정시발행	▪ 학술지를 정시에 발행하는지 여부
온라인 접근성	온라인 접근 가능성	▪ 온라인으로 최근 정보와 학술지 원문 열람 가능여부 ▪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
	영문홈페이지 이용 가능	▪ 영문홈페이지 제공 여부
	홈페이지 수준	▪ 홈페이지에 학술지 목적·범위, ISSN, 편집인과 학회정보, 구독 관련 정보 포함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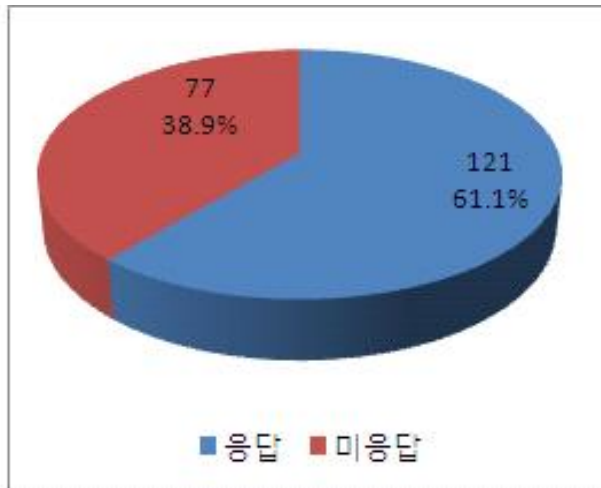
붙임4

학술지 평가제도 관련 대학 대상 설문조사 결과

□ 평가 주체

- 조사기간 : '13.5.2(목) ~ 5.20(월) (19일간)
- 조사대상 : 전국 대학(교) 교무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(총 198명)
 - ※ 당초 204명에게 발송하였으나, 캠퍼스 발송분(6명) 제외
- 조사내용
 - 등재(후보)학술지 관련 대학의 활용 실태
 -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대한 대학의 준비상황 및 대처계획
 - 등록 학술지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등

□ 응답현황



구분	응답현황	비율
응답	121	61.1%
미응답	77	38.9%
계	198	100%

□ 세부 응답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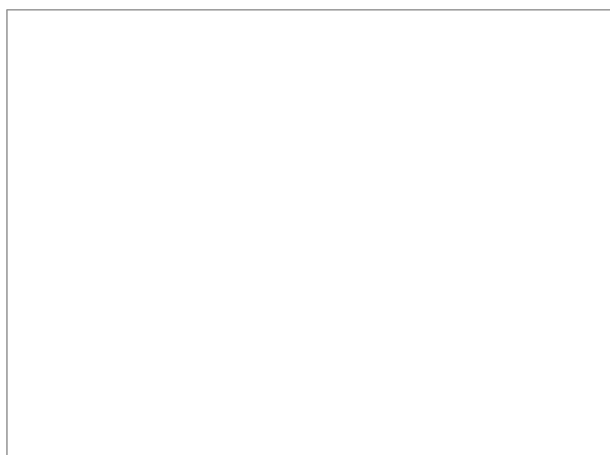
I.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관련 대학의 활용 상황

① 교원업적평가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활용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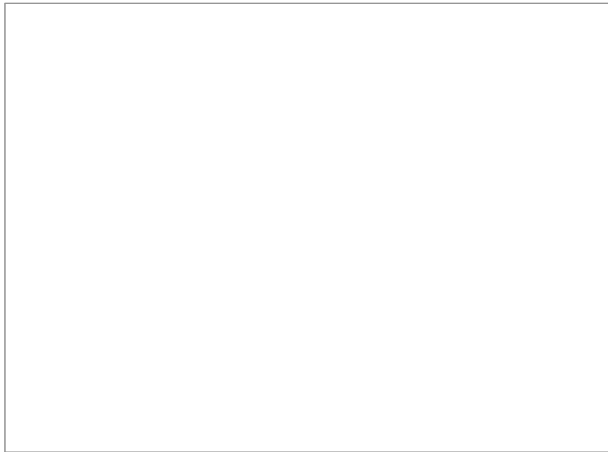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활용하고 있음	116	95.9%
활용하지 않음	5	4.1%
계	121	100%

② 교원업적평가의 어떠한 부문에 등재(후보)학술지를 활용하는지 (중복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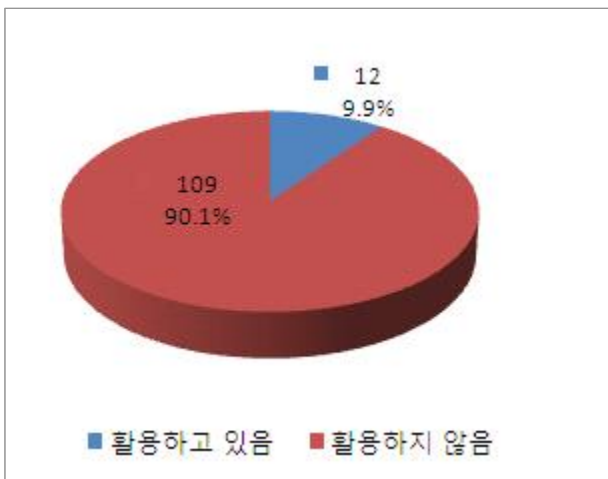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신임교원 임용기준	99	81.8%
교원 승진기준	114	94.2%
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	76	62.8%
교내 연구비 지원기준	88	72.7%
교원 재임용 기준	111	91.7%
기타	7	5.8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121	100%

②-1. 등재(후보)학술지 게재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학문분야(중복응답)


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인문학	111	91.7%
사회과학	108	89.3%
자연과학	86	71.1%
공학	82	67.8%
의약학	42	34.7%
농수해양학	30	24.8%
예술체육학	92	76.0%
기타	10	8.3%
응답자 수 (중복응답)	121	100%

③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(이하 KCI) 인용지수 활용여부


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활용하고 있음	12	9.9%
활용하지 않음	109	90.1%
총 응답자수	121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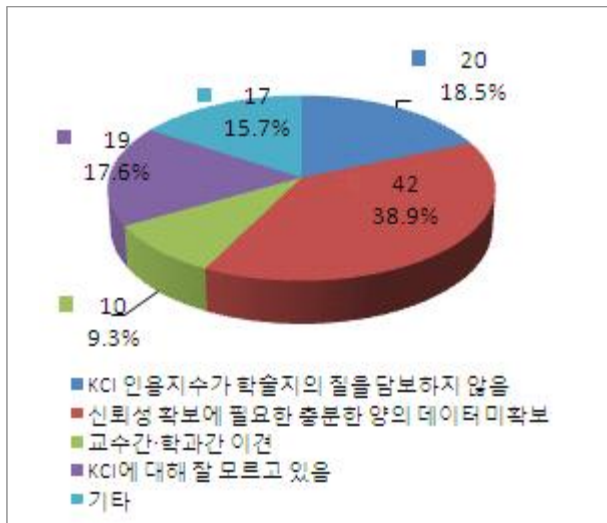
③-1. 교원업적평가의 어떠한 부문에 KCI 인용지수를 활용하는지
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신임교원 임용기준	11	91.7%
교원 승진기준	11	91.7%
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	5	41.6%
교내 연구비 지원기준	9	75.0%
교원 재임용 기준	11	91.7%
기타	-	-
총 응답자수(중복응답)	12	100.0%

③-2. KCI 인용지수를 활용하는 학문분야
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인문학	11	91.7%
사회과학	10	83.3%
자연과학	8	66.7%
공학	7	58.3%
의약학	5	41.7%
농수해양학	2	16.7%
예술체육학	9	75.0%
총 응답자수(중복응답)	12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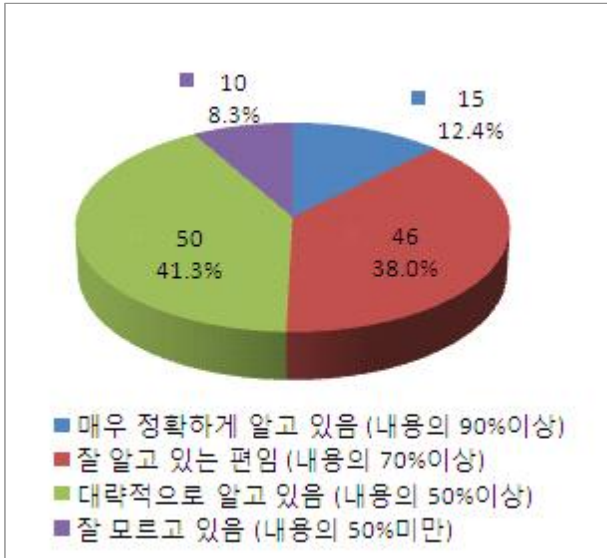
③-3. 현재 대학 내에서 KCI 인용지수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, 그 이유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KCI 인용지수가 학술지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	20	18.5%
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해서	42	38.9%
교수간·학과간 이견	10	9.3%
KCI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	19	17.6%
기타	17	15.7%
총 응답자수	108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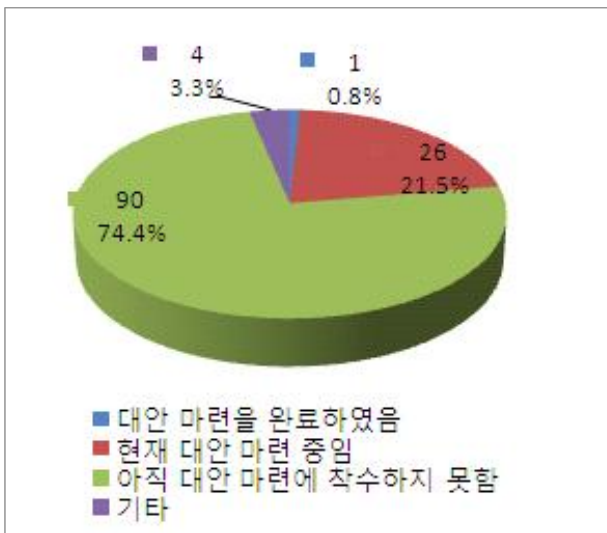
II.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관련 대학의 준비상황 및 대처계획

①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후속조치 인지여부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음(내용의 90%이상)	15	12.4%
잘 알고 있는 편임 (내용의 70%이상)	46	38.0%
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(내용의 50%이상)	50	41.3%
잘 모르고 있음 (내용의 50%미만)	10	8.3%
총 응답자수	121	100%

② 학술지 평가제도(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) 폐지 계획 발표에 따라 자율평가체제 구축 등 자체적 대안 마련 여부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대안 마련을 완료하였음	1	0.8%
현재 대안 마련 중임	26	21.5%
아직 대안 마련에 착수하지 못함	90	74.4%
기타	4	3.3%
총 응답자수	121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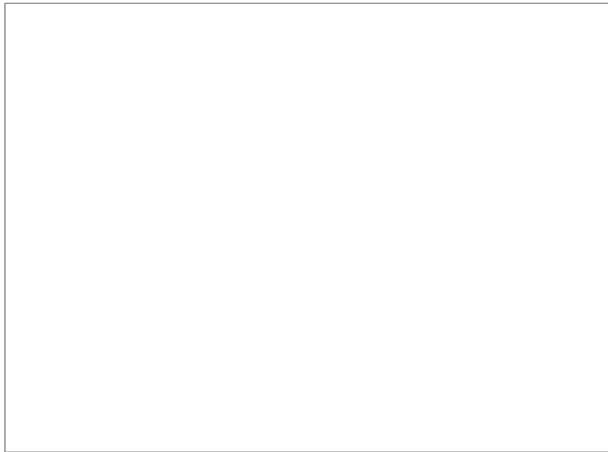
②-1. 현재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라면, 등재(후보)학술지의 대안은?(중복응답)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(단과)대학 및 학과별 자체 기준 마련	21	77.8%
해외 학술지 DB(SCI(E)급, SCOPUS 등)만 인정	6	22.2%
KCI 인용지수 활용	16	59.3%
기타	2	7.4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27	100%

②-2. 대안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, 그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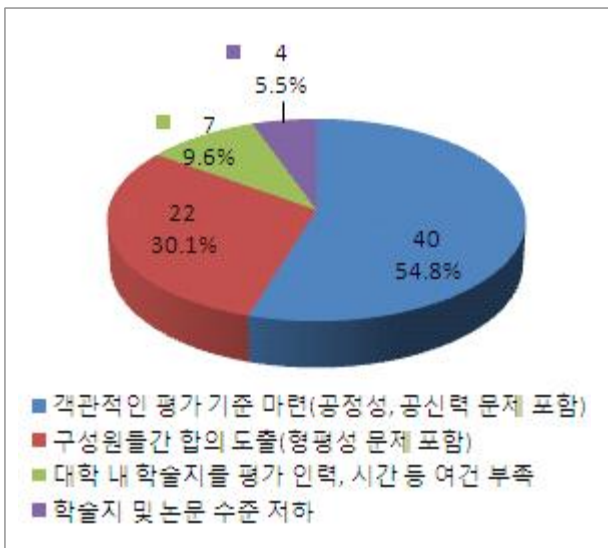
연번	주요내용	응답건수
1	세부기준 설정의 어려움	14
2	후속조치(등록지 포함) 등 확인 후 결정 예정	13
3	구성원들 의견 수렴 필요 (진행중)	11
4	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인지 및 전달 부족	8
5	대학 단위에서 교원업적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	6
6	기존 정책 유지 예정	4
7	과다한 업무 또는 업무파악 부족	3
8	구성원들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	3
9	타 대학 사례 등 관련 자료 조사 중	2
10	대안이 없음	2
11	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시간 필요	2
12	정보공시, 대학평가사업 등 기준 참고	2
13	객관적인 방향성 필요	1
14	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	1
15	교원인사평가 등 관련 기본 규정 정비가 우선임	1
응답자 수		73

②-3. 아직 준비하지 못하셨지만, 다음 중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(중복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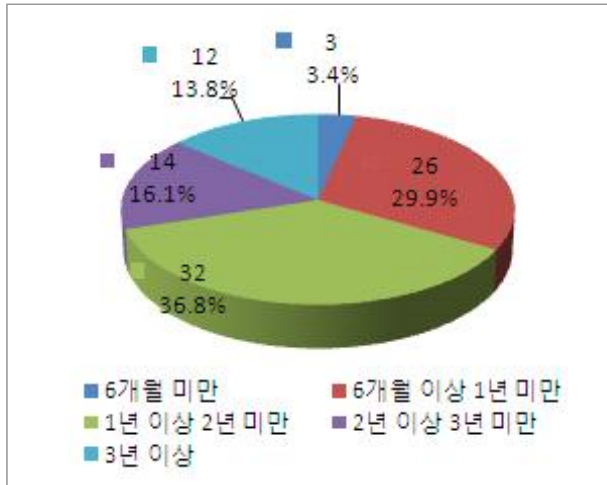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대학 및 학과별 자체 기준 마련	48	54.5%
해외 학술지 DB (SCI(E)급, SCOPUS 등)만 인정	10	11.4%
기존 등재(후보)학술지 계속 인정	63	71.6%
KCI 인용지수 활용	26	29.5%
기타	1	1.1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88	100%

②-4.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도중에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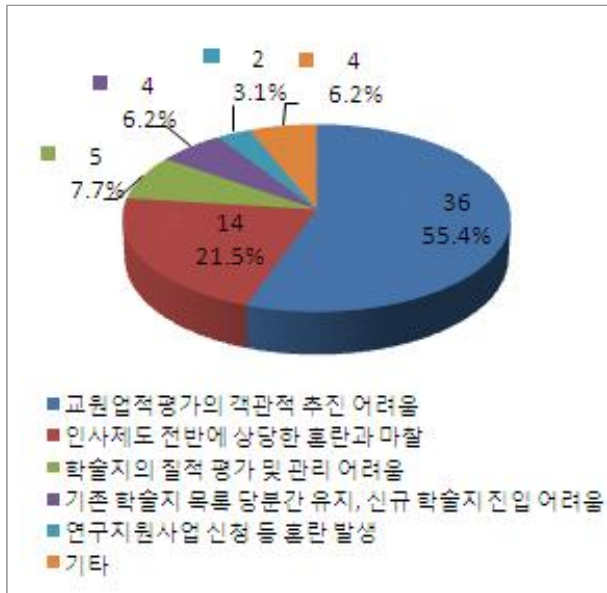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	응답 건수	응답 비율
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(공정성, 공신력 문제 포함)	40	54.8%
구성원들간 합의 도출(형평성 문제 포함)	22	30.1%
대학 내 학술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, 시간 등 여건 부족	7	9.6%
학술지 및 논문 수준 저하	4	5.5%
총 응답자수	73	100%

②-5. 학술지 평가제도가 폐지된다면 대안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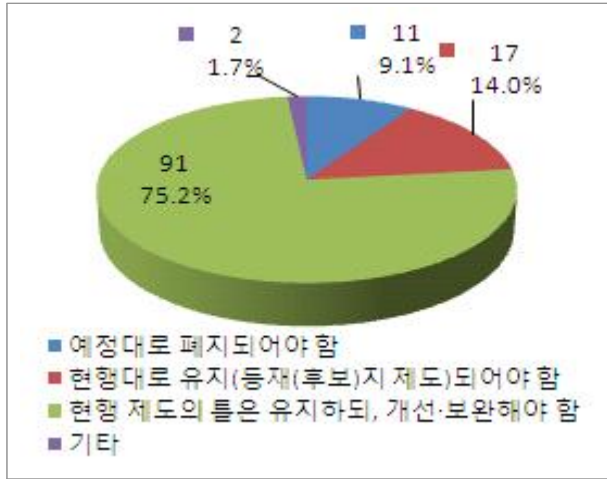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6개월 미만	3	3.4%
6개월 이상 1년 미만	26	29.9%
1년 이상 2년 미만	32	36.8%
2년 이상 3년 미만	14	16.1%
3년 이상	12	13.8%
총 응답자수	121	100%

③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지 평가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,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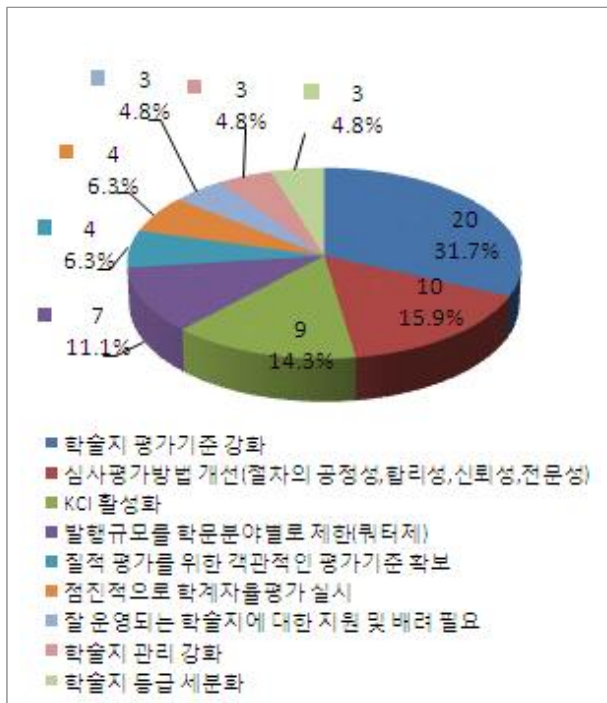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	응답건수	응답비율
교원업적평가의 객관적 추진 어려움	36	55.4%
인사제도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마찰	14	21.5%
학술지의 질적 평가 및 관리 어려움	5	7.7%
기존 학술지 목록 당분간 유지, 신규 학술지 진입 어려움	4	6.2%
연구지원사업 신청 등 혼란 발생	2	3.1%
연구성과물 창출 및 질적 관리 어려움	1	6.2%
교수평가에서 연구영역의 반영비율 축소	1	
자체기준 마련하기 전에 주요 대학 기준 벤치마킹	1	
등재지에 논문게재를 위해 노력한 교수들의 불만	1	
총 응답자 수	65	100%

④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함	11	9.1%
현행대로 유지 (등재(후보)지 제도) 되어야 함	17	14.0%
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, 개선·보완해야 함	91	75.2%
기타 (대안마련 후 폐지 등)	2	1.7%
총 응답자수	121	100.0%

④-1.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, 개선·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, 그 이유와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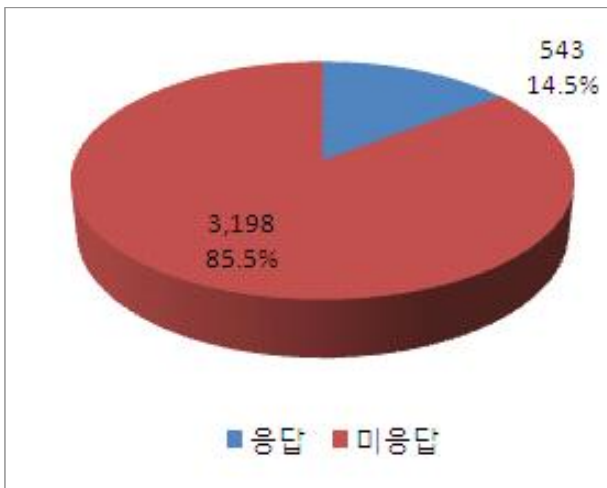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	응답 건수	응답 비율
학술지 평가기준 강화	20	31.7%
심사평가방법 개선(절차의 공정성, 합리성, 신뢰성, 전문성)	10	15.9%
KCI 활성화	9	14.3%
발행규모를 학문분야별로 제한(쿼터제)	7	11.1%
질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확보	4	6.3%
점진적으로 학계자율평가 실시	4	6.3%
잘 운영되는 학술지에 대한 지원 및 배려 필요	3	4.8%
학술지 관리 강화	3	4.8%
학술지 등급 세분화	3	4.8%
총 응답자수	63	100%

□ 평가 주체

- 조사기간 : '13.5.16(목) ~ 5.28(화) (13일간)
- 조사대상 : KCI 등록 학술단체 중 학술지 발행실적이 있는 기관 (총 3,741개)
 - ※ 학술지 중복 발행기관(1,043개) 제외
- 조사내용
 -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제도의 장·단점
 - 학술지 평가제도 변화에 따른 학회의 학술지 관리 변화
 -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(학술지평가 및 학술지 지원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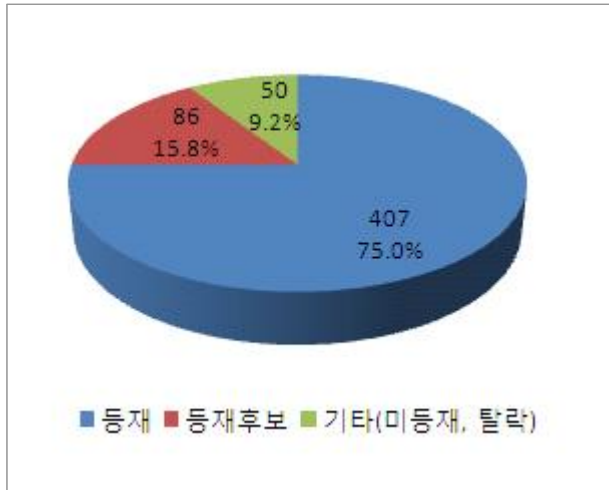
□ 응답현황 분석

- 응답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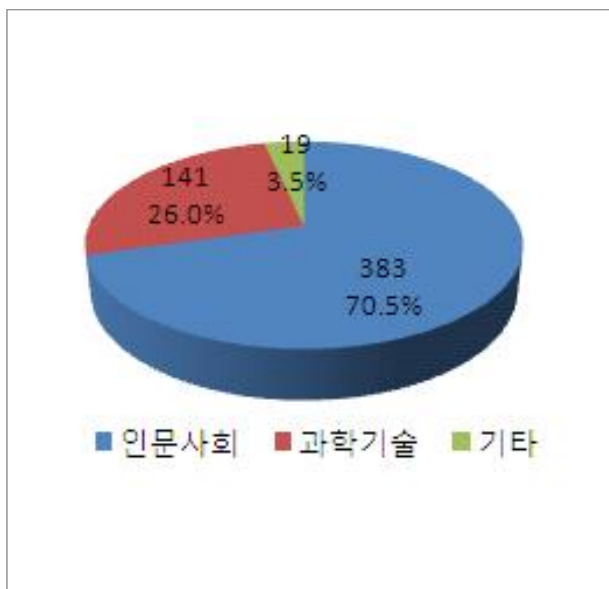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현황	비율
응답	543	14.5%
미응답	3,198	85.5%
계	3,741	100.0%

○ 학술지 성격(등재, 등재후보, 기타)별 응답현황



구분	응답현황	비율
등재	407	74.9%
등재후보	86	15.8%
기타(미등재, 탈락)	50	9.1%
총 응답자수	543	100.0%

○ 학문분야별 응답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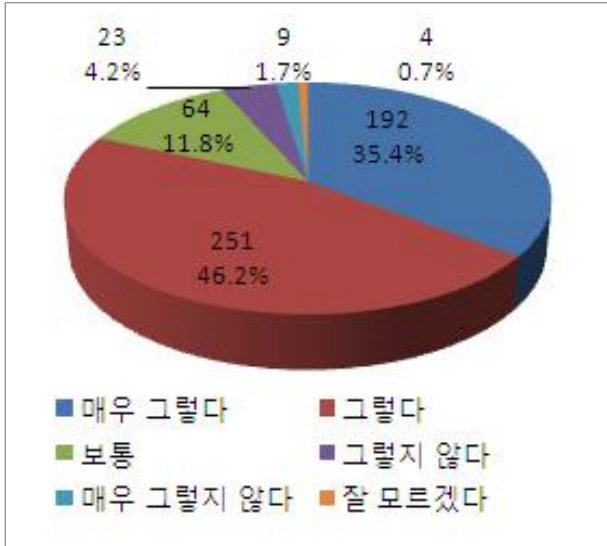


구분	응답현황	비율	
인문사회	인문학	158	29.1%
	사회과학	178	32.8%
	예술체육학	27	5.0%
	복합학	20	3.7%
	소계	383	70.5%
과학기술	자연과학	36	6.6%
	공학	47	8.7%
	의약학	46	8.5%
	농수해양학	12	2.2%
	소계	141	26.0%
기타 (미분류)	19	3.5%	
총 응답자수	543	100.0%	

□ 세부 응답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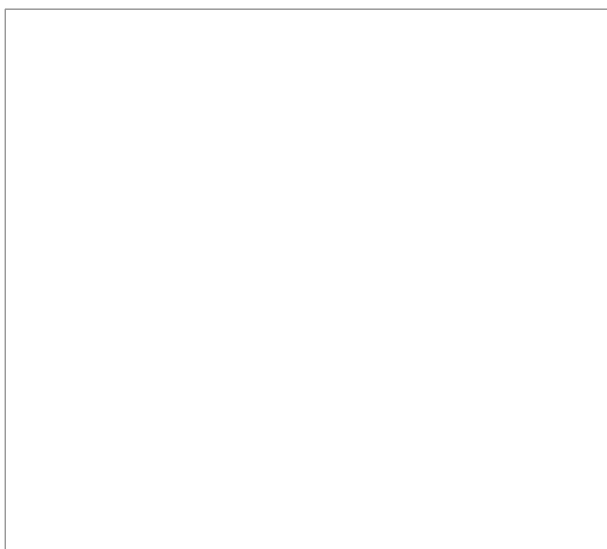
I.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제도의 장·단점

①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제도는 국내 학술단체의 학술활동 및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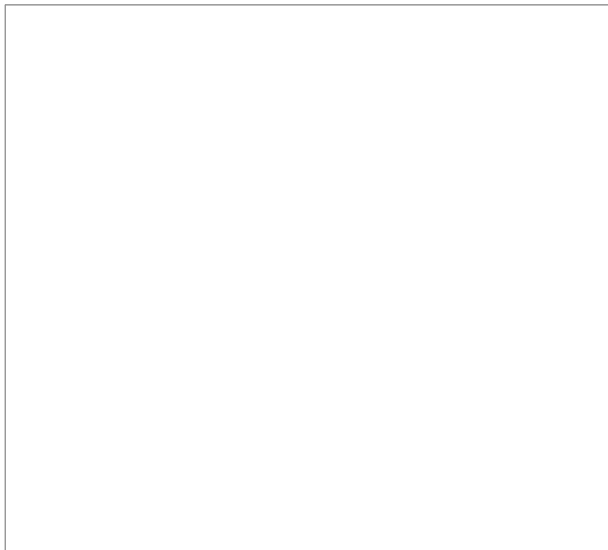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매우 그렇다	192	35.4%
그렇다	251	46.2%
보통	64	11.8%
그렇지 않다	23	4.2%
매우 그렇지 않다	9	1.7%
잘 모르겠다	4	0.7%
총 응답자수	543	100%

②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제도가 어떤 면에서 학술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(중복응답가능)



구분	응답현황	응답비율
국내 학술지의 체계 마련	314	57.8%
국내 학술지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	309	56.9%
국내 학술지 증가	90	16.6%
연구자의 연구성과 향상	134	24.7%
연구업적평가시 활용가능한 객관적 지표 확보	267	49.2%
기타	14	2.6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543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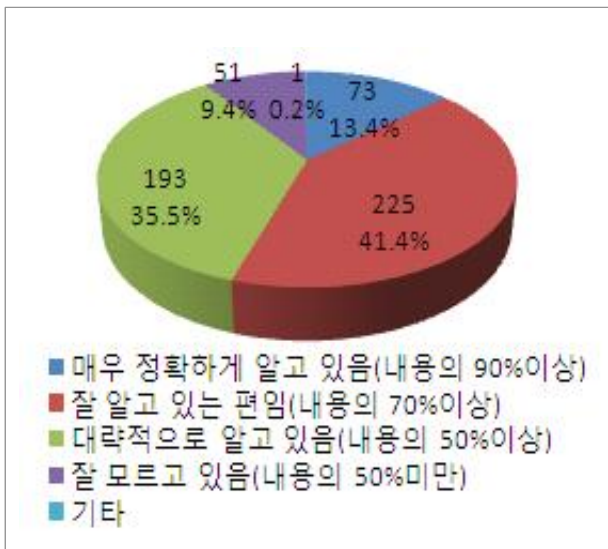
③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제도가 어떤 면에서 학술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하였는지?(중복응답)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국내학술지의 과도한 양적 팽창 (학회 및 학술지의 지나친 세분화, 질적관리 미흡 등)	256	47.1%
학술지 관리의 체계(형식) 중심주의 및 논문 수(양적 수준) 중심의 평가체제	331	61.0%
신생 및 소외학문분야 학회·학술지 발전 곤란	200	36.8%
등재(후보)학술지의 권력화	86	15.8%
기타	33	6.1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543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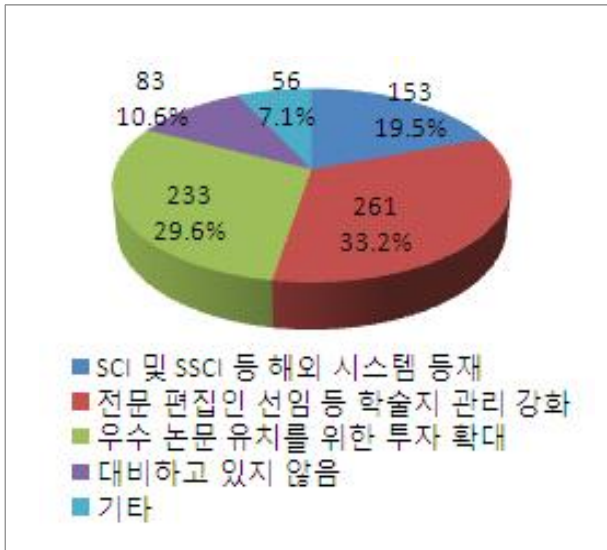
II.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(학술지 평가제도 부문)에 대한 의견

①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후속조치 인지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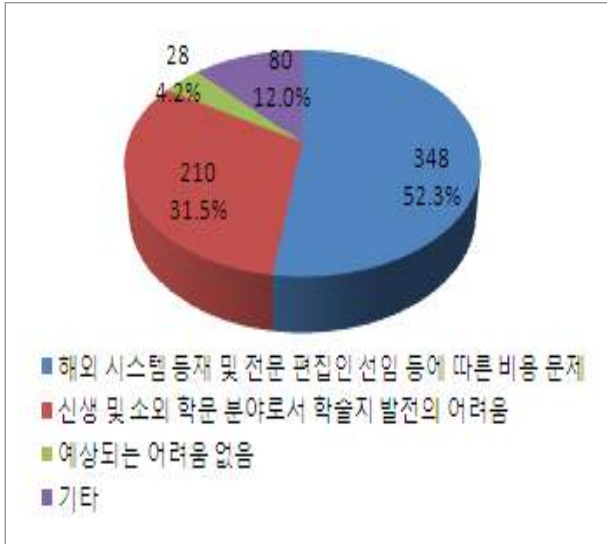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음(내용의 90%이상)	73	13.4%
잘 알고 있는 편임(내용의 70%이상)	225	41.4%
대략적으로 알고 있음(내용의 50%이상)	193	35.5%
잘 모르고 있음(내용의 50%미만)	51	9.4%
기타	1	0.2%
총 응답자수	543	100%

②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학회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사항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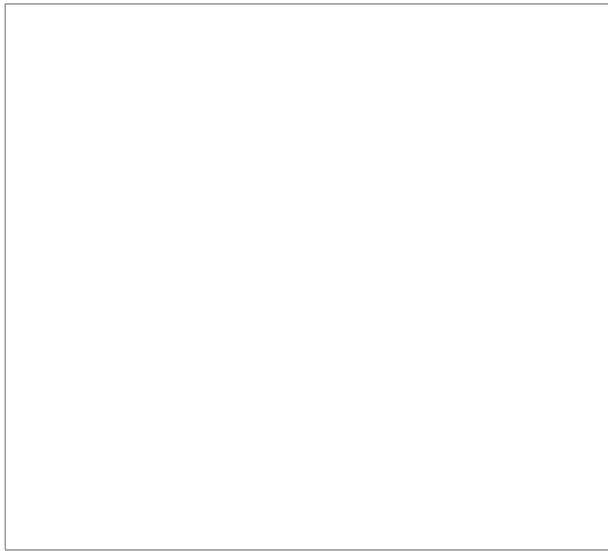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SCI 및 SSCI 등 해외 시스템 등재	153	19.5%
전문 편집인 선임 등 학술지 관리 강화	261	33.2%
우수 논문 유치를 위한 투자 확대	233	29.6%
대비하고 있지 않음	83	10.6%
기타	56	7.1%
총 응답자수	543	100%

③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학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?(중복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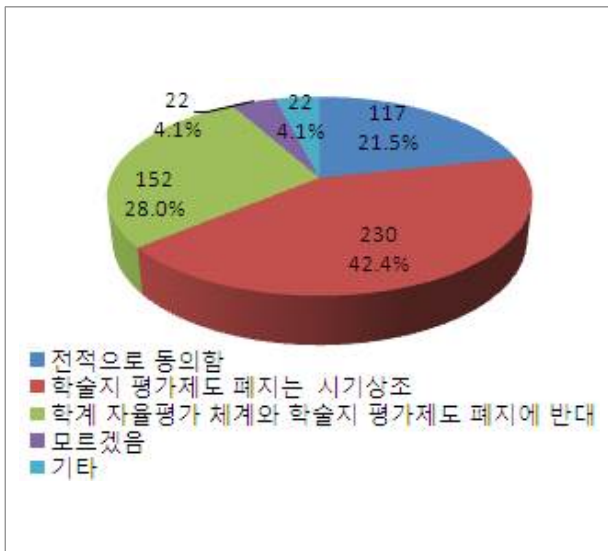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해외 시스템 등재 및 전문 편집인 선임 등에 따른 비용 문제	348	64.1%
신생 및 소외 학문 분야로서 학술지 발전의 어려움	210	38.7%
예상되는 어려움 없음	28	5.2%
기타	80	14.7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543	100%

④ 학술지 평가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, 예상되는 문제는?(중복응답)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학술지 질 관리 약화로 인한 질 저하	266	49.0%
교수업적평가 부실화	192	35.4%
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술단체(학술지) 난립	285	52.5%
기존 (대규모)학회의 권력화	231	42.5%
기타	62	11.4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543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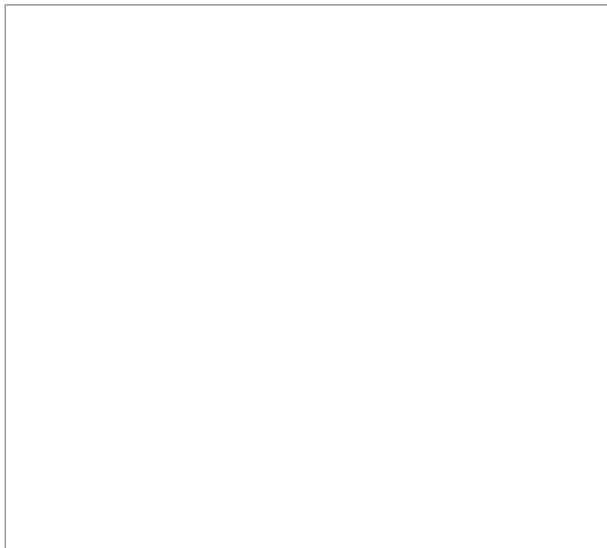
⑤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 평가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전적으로 동의함	117	21.5%
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, 아직까지 시기상조임	230	42.4%
학계 자율평가 체계와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반대함	152	28.0%
모르겠음	22	4.1%
기타	22	4.1%
총 응답자수	543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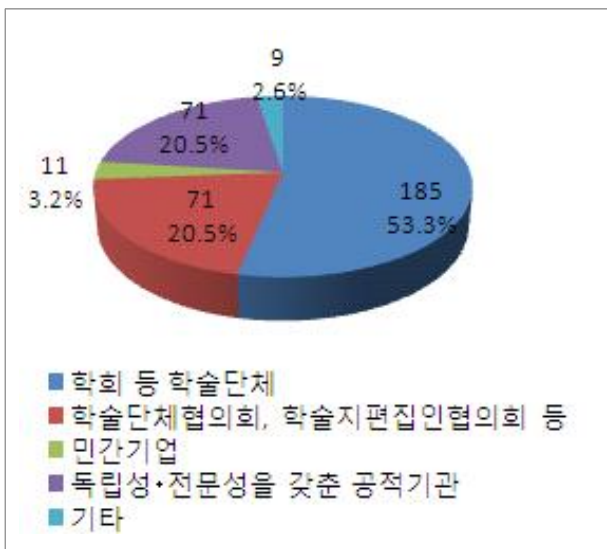
II-1.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의 전환 관련

①-1.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의 전환에 동의한다면, 학계 자율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?(중복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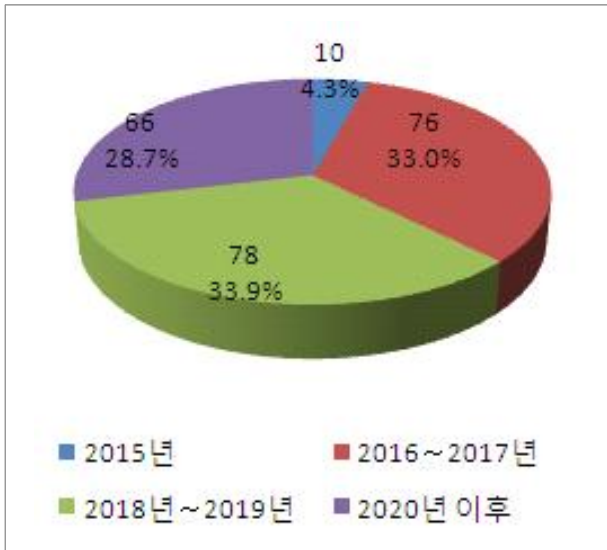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등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(예산 지원)	268	49.4%
학술지편집인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	105	19.3%
KCI, 온라인 논문 투고 및 관리시스템 등 학술지 관리 시스템 지원	205	37.8%
신생 학술단체 및 소외 학문분야 학회활동에 대한 지원	120	22.1%
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	9	1.7%
기타	15	2.8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543	100%

①-2. 학계 자율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?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학회 등 학술단체	185	53.3%
학술단체협의회, 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	71	20.5%
민간기업	11	3.2%
대학	0	-
독립성·전문성을 갖춘 공적기관	71	20.5%
기타	9	2.6%
총 응답자수	347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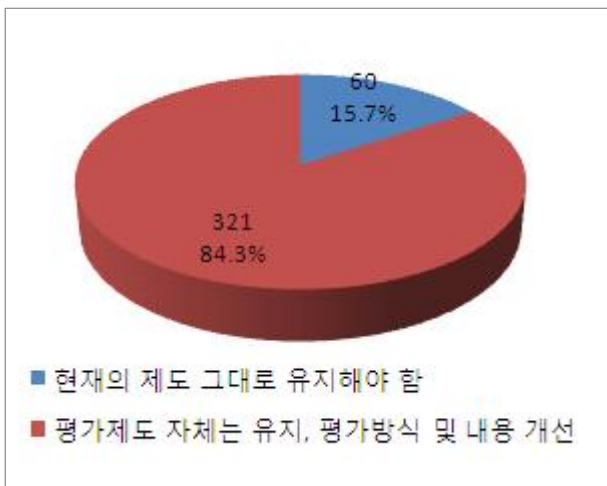
② '14년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면, 어느 시점에서 학술지 평가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?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2015년	10	4.3%
2016~2017년	76	33.0%
2018년~2019년	78	33.9%
2020년 이후	66	28.7%
총 응답자수	230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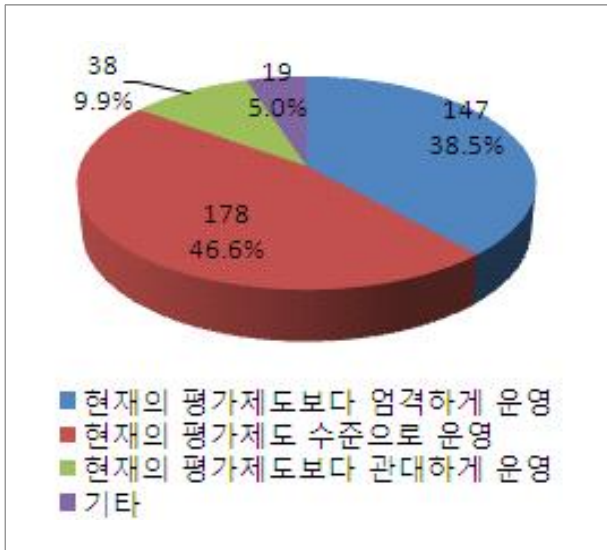
II-2. 학술지 평가제도 계속 운영 관련

① 학술지 평가제도를 계속 운영한다면,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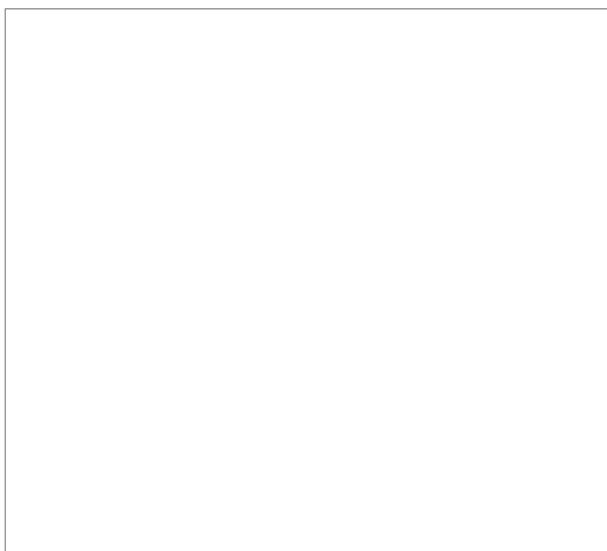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현재의 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함	60	15.7%
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, 평가방식 및 내용을 개선해야 함	321	84.0%
총 응답자수	381	100%

①-2.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면, 평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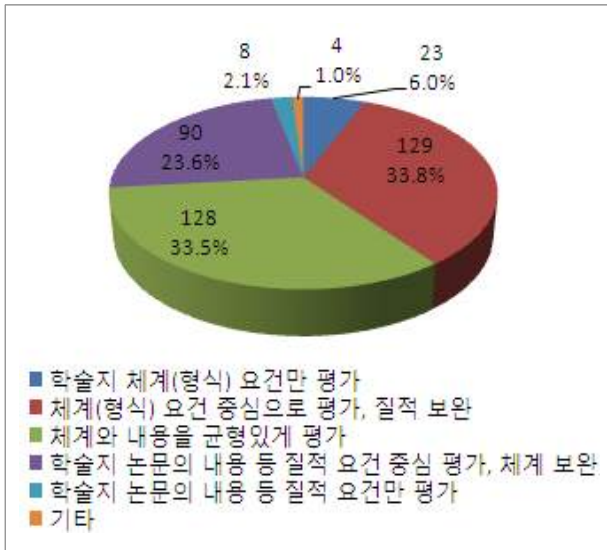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현재의 평가제도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함	147	38.5%
현재의 평가제도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함	178	46.6%
현재의 평가제도보다 관대하게 운영하여야 함	38	9.9%
기타	19	5.0%
총 응답자수	382	100%

①-3.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면, 현재의 제도 중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?(중복응답)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평가시기	28	7.3%
평가단계 및 절차	98	25.7%
평가항목 및 기준	298	78.0%
평가자 구성	104	27.2%
등재(후보)유지 기준점수	98	25.7%
기타	13	3.4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382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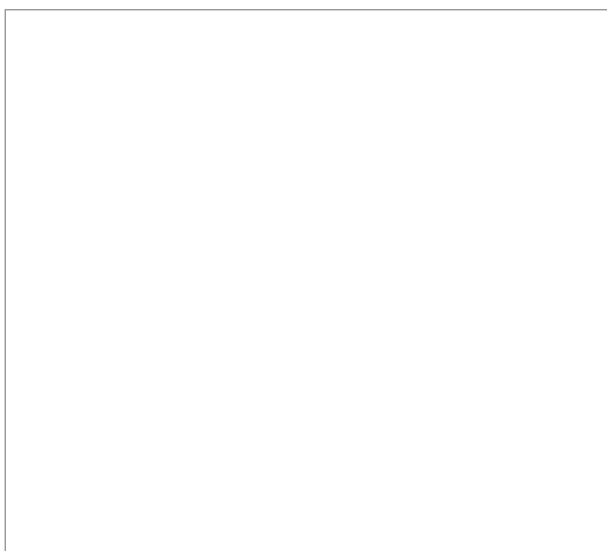
①-4.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면,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?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학술지 체계(형식) 요건만 평가	23	6.0%
체계(형식) 요건 중심으로 평가하되 학술지 논문의 내용 등 질적 요건 보완	129	33.8%
체계와 내용을 균형있게 평가	128	33.5%
학술지 논문의 내용 등 질적 요건 중심으로 평가하되 체계(형식) 요건 보완	90	23.6%
학술지 논문의 내용 등 질적 요건만 평가	8	2.1%
기타	4	1.0%
총 응답자수	382	100%

Ⅲ.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(학술단체 지원사업 부문)에 대한 의견

①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 학술지 지원사업 추진(우수학술지 및 소외·신생·지역 학문 분야 학술지 지원 강화,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축소 등)에 동의하는지?(중복응답)



구분	응답 현황	응답 비율
우수학술지 육성	267	49.2%
소외·신생·지역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 강화	324	60.0%
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축소	25	4.6%
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보급	214	39.4%
기타	32	5.9%
응답자 수(중복응답)	543	100%